광주시청 한정미 육상 400m 대세로 '우뚝'

광주시청 한정미

전국육상경기선수권 우승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 보이며
김지은 세번 꺾고 '시즌 3관왕'

광주시청 한정미가 국내 400m 최강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정미가 지난 24일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400m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와 2023 예천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우승에 이은 시즌 3관왕이다.

한정미는 이날 대회 여자 400m 예선에서 57초49로 조 1위를 한 뒤 결승에서 55초95로 가장 먼저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2위는 김지은(전북개발공사·56초27), 3위는 이아영(광양시청·56초78)이 차지했다.

한정미는 이번 대회 우승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0개 대회 400m를 석권한 김지은(31·전북개발공사)을 결승에서 세 차례나 꺾었다.

한정미는 2023 예천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 400m 우승을 차지했다.

한정미는 이 대회 여자 400m 결승에서 55초98을 기록, 김지은(56초52)을 제치고 가장 먼저 골인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한정미가 올시즌 가파른 상승세로 400m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기록을 끌어올리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18세 이하(U-18) 여자 100m 결선에서는 이다원(전남체고)이 12초17의 대회 신기록으로 정상을 밟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고 양궁 조수혜 2관왕 '명중'

유망주 경연 무대 화랑기
개인전·혼성 단체전 우승

양궁 유망주의 경연 무대인 화랑기 제44회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광주체고 3학년 조수혜〈사진〉가 혼성 단체전과 여자 개인전 2관왕에 올랐다.

조수혜는 6일 전북 임실의 국제양궁장에서 끝난 대회 고등부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남지현(광주체고)에게 6-2로 승리해 대회 2연패를 이뤄냈다.

또 최우진과 함께 광주 대표로 나선 고등부 혼성 단체전에서도 대전(김보경·박은성)을 6-0으로 완파하고 우승, 2관왕을 달성했다.

조수혜는 지난 10일 막을 내린 2023 아시아양궁연맹(WAA) 아시아컵 3차 대회에서 리커브 여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바 있다.

고등부 남자 개인전에서는 박재형(인천체고)이 김종우(경기체고)를 6-0으로 꺾고 우승했다.

고등부 남자 단체전에서는 대구(김종환·조윤혁·김기범)가 충북(이효범·김동현·지예찬)을 5-1로 물리치고 우승했고, 여자 단체전에서는 경북(최혜미·윤혜림·이연우)이 대구(신고인·박미소·윤수희)를 슛오프 끝에 5-4로 제압해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연합뉴스

15년만에 복귀 유도 이원희
19살 어린 선수에 값진 승리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41) 용인대 교수가 현역 복귀전에서 자신보다 19살이 어린 선수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다.

이원희는 2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2023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남자 73kg 1라운드에서 개인중립선수(INDIVIDUAL NEUTRAL ATHLETES) 자격으로 출전한 벨라루스 출신 알라바초우 루슬란(22)을 반칙승으로 꺾었다.

루슬란은 경기 시작 후 1분 44초에 금지 기술을 써 실격 판정을 받았고, 이원희는 그대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

2라운드는 아쉬웠다. 이원희는 베크루즈 호다조다(타지키스탄)와 치열한 승부를 펼치다가 정규시간 35초를 남기고 안뒤축걸기 절반을 내줘 패했다.

이원희는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유도 선수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유도계의 전설이다. 그는 2003년 국제대회 48연승을 달성했고, 당시 44경기에서 한판승을 거둬 '한판승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원희는 2008년 5월 베이징올림픽 선발전에서 왕기춘에게 패해 은퇴를 선언했고, 이후 해설위원을 거쳐 2011년부터 모교인 용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원희는 2021년 여름 현역 복귀를 결심한 뒤 훈련 과정을 거쳐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했다. 이원희가 국제대회에서 승리한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IJF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빗당겨치기 고수인 유도계 전설 이원희가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영암군씨름단 김민재·최정만 단오장사 '2연패'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각각 백두·금강장사 등극

영암군민속씨름단 김민재와 최정만이 나란히 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꽃가마를 탔다.

김민재가 25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 단오제 행사장 씨름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140kg이하) 결정전(5판 3승제)에서 정창조(수원시청)를 3-0으로 꺾고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민재가 세 판 모두 들배지기를 성공하며 손쉽게 우승했다.

김민재는 대회 2연패를 이뤘고, 개인 통산 5번째 백두장사에 올랐다.

최정만은 지난 23일 금강장사(90kg이하)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임태혁(수원시청)을 3-2로 꺾고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최정만은 지난해 단오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잇따라 금강장사에 등극했다. 아울러 개인 통산 18번째 금강장사에 올랐다.

결승전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팽팽한 접전이었다. 최정만은 18차례나 금강장사에 오른 임태혁을 상대로 힘겨운 승부를 벌였다.

최정만은 첫 판은 안다리로 임태혁을 쓰러트리며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임태혁은 밭다리와 밀어치기로 각각 두번째, 세번째 판을 따내며 최정만을 벼랑끝으로 몰았다.

최정만은 네번째 판에서 뒤집기로 임태혁을 제압, 2-2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그는 마지막 판에서 잡채기로 임태혁을 눕히며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최정만은 8강전에서 밭다리와 안다리를 사용해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태하(연수구청)장사를 눕히고 준결승전에 올랐다.

그는 준결승에서도 벼랑끝 승부에서 기사회생했다. 준결승에서 만난 상대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인 김기수(수원특례시청)였다.

첫 판 최정만이 밀어치기를 사용하며 한 점 먼저 가져왔고, 두 번째판은 김기수가 밀어치기를 성공해 1-1 동점 상황이 됐다.

최정만은 마지막 판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뿌리치기로 김기수를 제압하고 장사 결정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민재가 25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 단오제 행사장 씨름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승전에서 정창조를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단체전 정상을 차지한 대한민국 여자사브르 대표팀. 전은혜(인천중구청·왼쪽부터)·최세빈(전남도청)·홍하은·윤지수(이상 서울시청).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펜싱 최세빈 단체전 '금'

아시아선수권 사브르
한국, 중국 꺾고 우승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이 국제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사브르)이 최근 중국 우시에서 열린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브르 단체전에서 중국을 45-4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세빈·전은혜(인천중구청), 윤지수·홍하은(이상 서울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에서 부전승으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싱가포르를 만나 45-32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홍콩에 45-34로 승리했다.

한국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올해 멤버가 대폭 교체 됐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을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다.

한편, 최세빈은 지난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으며, 지난 3월 신트니클라스 월드컵에 이어 이번 아시안선수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는 등 5연속 국제대회에서 입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엘리멘탈
2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나비효과, 플래시
3관	귀공자
4관	엘리멘탈
5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6관	범죄도시3
9관	귀공자
7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수라
8관 씨네커플	범죄도시3, 인드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